

## 제10장 공동관리주의자가 생산한 생계수단들<sup>1</sup>

스토펙 메레츠(Stefan Meretz)

### 1. 도입

계급투쟁은 부의 분배만을 다루었기에 실패했다. 그리고 부가 어떻게 생산되는가를 이해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 계급투쟁은 생산을 본질적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취급했다. 상품은 단지 경제를 통해 유통되는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인 대상으로 이해했다.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자본주의는 우리가 재생산을 위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노동력을 판매할 때만 방문하는 외부 권력체계가 되었다. 결정적으로, 계급투쟁의 사회경

---

1 원문 출처는 다음과 같다. Stefan Meretz, “Peer-commonist produced livelihoods”, Ruivenkamp, G. & A. Hilton (eds.), *Perspectives on Commoning. Autonomist Principles and Practices*, London: Zed Books, 2017, pp.417-461. At <http://keimform.de/2017/peer-commonist-produced-livelihoods/>

제학적 분석과 정치적 메타 구조(political meta-structure) 분석을 따를 경우, 우리(대중, 다중)와 자본(헤게모니, 권력)은 존재론적으로 구별된, 별개의 실체로 분리된다. 이런 분석을 따르는 연대에 대한 요구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을 결정하고 있다. 이 현상의 근본에는 인간 존재의 필요조건, 곧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의 생산이 있다. 이때 필요는 매우 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음식과 주거지 그리고 기타 물리적 재화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나 상징적 질서와 같은 무형재화도 포함된다. 현재 쟁점을 단지 자원의 분배, 특권의 이용 등에 관한 질문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너무 좁은 견해다. 생활 그 자체를 생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발상은 이런 좁은 견해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한다. 좁은 견해는 우리가 안전한 해안가에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그 해안가엔 우리가 열망할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외부’(outside)가 없다. 우리는 매일 자본주의를 행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외부 권력체계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산하는 내면화된 체계이자, 대상화하는 체계이다.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가에서 자본주의는 중요한 일부분이다. 우리는 내일 무엇인가를 먹어야만 하고, 바로 그 때문에 오늘 그렇게 간단하게 ‘자본주의를 그만두자’고 할 수 없다.<sup>2</sup> 당면한 과제는 그보다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첫째, 우리는 상품 개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상품은 잉여가치를 지닌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팔아 돈을 벌 수 있기도 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상품은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가 생활

---

2 Holloway, J., *Crack Capitalism*, London/New York: Pluto Press, 2010.

을 생산하는 대상화된 사회적 형식이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몰신주의(fetishism)라는 그의 개념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이다. 즉, 사람들 사이의 사회관계가 사물 사이의 객관적 관계로 표현되는 것 말이다. 사람들은 필요와 활동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 상호 소통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별개의 생산물들이 교환을 통해 시장에서 ‘상호소통’하며, ‘가치’라고 불리는 그들 관계의 객관적 척도를 낳는다. 가격을 통해 금전적으로 계량화된 그 가치를 따르는 생산물 사이의 관계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사적으로 생산한 교환물이 교환될 때 상품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주요 발견 중 하나다. 사실, 이것은 마르크스에게 너무나 중요해서 『자본』(Capital)의 분석적 출발점을 결정했다. 가치, 화폐, 자본, 노동, 그리고 계급 등과 같은 후속 개념은 자본주의 기본적인 사회형태, 즉 상품에 대한 이해에 입각한다.<sup>3</sup> 자본주의 자체의 범주를 활용해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으려 했던 전통적인 접근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선, “자본주의의 상품과 같은, 새로운 사회의 기초 사회 형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생산양식과 새로운 생활의 기초 사회 형태에 관한 질문이다. 그 답은 놀랍게도 간단하다. 우리 눈앞에서 진화하고 있는 공동자원(common)이 바로 그것이다.<sup>4</sup> 따라서 공동자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3 ‘기초 형태’(elementary form)란 단어는 Marx가 1887년 영어판 《자본》 1권 첫 문장에서 사용한 단어다. 여기서, 상품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하나의 ‘단위’ 혹은 ‘기초 형태(German, ‘Elementarform’, see Dragstedt, 1976)’이다. 《자본》의 1867년 독일 원판에서 Marx는 이 단어를 강조했다.

4 Dyer-Witthoford(2007)가 다소 유사한 접근을 제안했다. 그는 ‘공동의 것

특히 공동자원이 어떻게 새로운 사회의 배아 형태(embryonic form)가 될 수 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나는 상품처럼 공동자원도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고 본다. 공동자원은 단지 관리되는 자원<sup>5</sup>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관리되는 자원조차도 아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런 것을 넘어서, 생활을 생산하는 사회 형태다. 상품은 분리된 개체들이 사적으로 생산하지만, 이와 달리 공동자원은 연합을 통해 만들어지고 국가와 시장의 논리를 뛰어넘어 유지된다. 이 때문에, 필요와 그 필요 충족의 수단 사이에 완전히 다른 조정의 동학이 등장한다. 상품 체계의 물질적 전제와 운영에 관한 문제 목록을 공동자원 기반 체계와 비교해보면 이는 분명해진다.

첫째, 상품은 안정된 수요를 충족하리라는 희망 속에 생산된다. 왜냐하면 상품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자원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둘째, 필요를 충족하는 데 상품이 이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희소성이 상품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sup>6</sup> 셋째, 두 번째 쟁점에서 암시되었던 것처럼,

---

(the 'common')'을 자본을 넘어선 사회의 '세포 형태'로, '운동'은 그 배후의 사회적 힘으로 제안한 바 있다.

Dyer-Witheford, N., "Commonism.", *Turbulence* 1, 2007, at <http://turbulence.org.uk/turbulence-1/commonism>.

5 Ostrom, E.,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6 경제활동을 희소성을 고려한 거래로 취급해온 일반적인 이데올로기 도식은 여기서 역전된다(그 이데올로기 도식에서 희소성은 자연화되고, 한계로 오인된다. 하지만 그 한계 사회적으로 관리된 것이다. 왜냐하면 재화에 사람들이 접근하는 걸 사유재산으로 인위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희

상품이 파괴되는 것은 드문 일도 예외적인 일도 아니다. 상품파괴는 희소성을 유지하는 구조의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sup>7</sup> 그러므로 희소성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는 자본주의 상품체계는 모든 이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낭비와 파괴를 야기한다. 자본주의는 오직 명백히 불균형적이고(필요 충족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불균형하다), 거의 틀림없이 지속할 수 없는 방식(경제 내적인 이유와 궁극적으로 생태학적 이유로)으로만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시장 조정은 자원을 균등하게 분배할 수 없는데,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유일한 척도가 화폐이기 때문이다. 만약 필요가 화폐와 함께 오지 않는다면 곧 필요가 지불 능력이 없다면, 필요는 시장 조정의 측면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이것의 결과는 전 지구적 기아, 정신적 타락, 환경 파괴 그리고 기후변화 등등이다.

반면에 공동자원의 경우, 생산은 사람들의 명확한 필요와 욕구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런 필요와 욕구를 명확히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거의 통일되어 있지 않고 때론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먼저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고 결정되

---

소성은 언제나 인위적이다).

7 이는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같은 간접적인 이유로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식품의 최대 50%가 버려지고 있다(Mechanical Engineers, 2013). 하지만 상당히 의도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1920년대와 30년대 악명 높은 Phoebus cartel에서 유래된 계획적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나 시장왜곡이라는 방법과 같이, 수익 동기가 직접 기능하면서 말이다.

Mechanical Engineers, *Global Food. Waste Not. Want Not.* 2013, at <https://www.imeche.org/policy-and-press/reports/detail/global-food-waste-not-want-not>.

어야 한다. 공동자원 생산은 눈가림 형태가 아니다. 비효율적이기도 간접적으로 낭비를 조장하지도 않는다. 또한 공동자원 생산은 조작적 형태도 아니다. 시장 왜곡이나 계획적 진부화(built-in obsolescence)를 통해, 의도적으로 낭비하지도 않는다. 공동자원체계 생산은 의식적이고, 직접적인 필요에 따른 과정이다. 재산에 따른 배제와 의도적 혹은 구조적 낭비로 인위적 희소성을 만드는 대신에, 통합, 풍요 그리고 다양성이 핵심 동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공동자원 생산은 환경 악화나 매우 부당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의존하지 않는다. 공동자원의 운영 논리가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공동의 필요로 묶인 동료라는 운영 논리가 그렇다.

서로 다른 공동자원 간에 네트워크가 거의 실현되고 있지 않은 현 발전 단계로 인해, 서로 다른 생산양식의 기본 형태인 상품과 공동자원 체계를 동일한 실현 수준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의 핵심 논리를 분석하여 일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상품은 먼저 생산되고 후에 시장에서 조정된다.<sup>8</sup> 이 후속(사후)조정은 서로 다른 필요를 구분하여, 모든 필요를 제품 교환이 돈이 되는 경우에만 실현되는, 그래서 돈을 내야만 하는 수요(demand)로 변형시킨다. 그 가장 기초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판매/구매 행위는 하나의 특정한 필요를 충족하며, 이때 다른 필요는 모두 제외된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충족되어야 하는 다른 필요를 ‘외부효과(externalities)’라고 부른다. 필요를 이렇게 분리하고 외부화(externalization)하면 나쁜

---

8 물론 기업들은 시장들을 ‘창출’한다(일반적으로 자본들이 ‘희소성의 생산’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점이 현재 논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과가 나오기 쉽다. 예를 들어, 우리가 셔츠를 구입하면, 옷에 대한 우리의 필요는 충족된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 어떤 끔찍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착취 현장의 여성들이 그 셔츠를 생산하고 있다면, 이 여성들의 필요는 손상된다. 또는 우리가 자동차를 위한 도로를 원할 때 집 앞의 교통 혼잡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상품 소비를 원하지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오염을 원하지는 않는다.<sup>9</sup> 상품논리가 필요나 모순적 욕구를 특정하게 충돌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반적 경향이 체제의 주요한 부정적 특징이란 점은 분명하다.

반면에 공동자원체계의 구조와 운영에선, 조정이 우선하고 생산은 뒤따른다. 이런 사전 조정은 공동자원의 제도와 운영에서 규칙적으로 관찰된다. 예를 들어 오스트롬과 인디애나 워크숍이 연구한 ‘전통적인’ 지역적이고 물질적인 공동자원체계들은,<sup>10</sup> 구성원 사이의 협상을 통해 ‘비극’을 실제로 피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무료 소프트웨어처럼 비물질(가상)적이고, 어디에도 매여져 있지 않은 공동자원의 경우, 개발자와 이용자들이 먼저 함께 모여, 그들이 바라는 제품의 특징과 작동방식에 대해 토론한다. 말할 것도 없이, 아마도 경제학자들은 사전 중재의 형태에 ‘내부성’(internality)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sup>11</sup> 분명, 사람들은

9 한 개인의 시각에서, 비판심리학자들은 이 상황을 구조적인 자기-적대(structural self-hostility) (Holzkamp, 1983)라고 설명한다.

Holzkamp, K., *Grundlegung der Psychologie*, Frankfurt/New York: Campus, 1983.

10 See <https://ostromworkshop.indiana.edu/research/>

11 내면성(internality)에 관한 소극적 개념(negative notion)은 행동경제학에서 쓰인다. 여기서 내면성은 대략적으로 말한다면, 자신을 해치는 외부성(externality)이다.(위의 ‘자기-적대’를 참조하라)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모든의 각기 다른 필요를 동기화할 수 없다. 바로 이 때문에 공동자원의 잠재성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둘째로, 상품은 추상적 수단인 화폐로 매개된다. 사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교환해야 하므로, 상품은 두 가지 상반된 측면으로 분해된다. 생산 기간과 이용 기간에는 상품의 구체적인 측면이 관계하고, 교환 기간엔 오직 가치 표현의 측면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목표는 상품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가격 신호를 제공하는 화폐의 능력을 찬양하지만, 이 신호는 순전히 공급과 수요의 양적 표현일 뿐이다. 필요를 직접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먼저 하나의 수요로 변형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 깨끗한 환경을 원한다면, 탄소 배출처럼 오염에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 그러면 오염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원래의 목표와 빠르게 탈동조화(decoupling)화 되어, 수익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변형된다.

공동자원 조정은 공동자원을 통한 조정이다. 공동자원이 공동의 자원인 동시에 그 자원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사회적 과정(공동관리, commoning)이기 때문에, 조정은 공동자원 그 자체와 분리될 수 없다. 공동자원을 행하는 것과 공동자원 만들기는 하나로 결합해 있다. 공동자원에 선 상품에서처럼 화폐라는 제3의 수단은 없다. 사람들을 공동자원과 연결하는 것은 질적인 의미이다. 이 사람들은 동료(peer)로 정의되고,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동료들의 서로 다른 필요를 표현하는 서로 다른 의미들은 스티그머지(stigmergy)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조정된다. ‘스티그머지’를 간단히 말한다면, 이는 하나의 과제 분배 형태이다.

셋째로, 상품은 존재하기 위해 외부 영역이 필요하다. 상품은 그 자체만으로 재생산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사람들을 생계수단과 분리하는 폭력적 과정(공동자원체계의 인클로저) 곧 이른바 ‘본원적’ 축적을 분석했

다.<sup>12</sup>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 본원적 축적이 자본주의가 그 논리에 따라 확장하는 초기 과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비상품화 된 지역을 자본주의 상품 논리에 포함해야만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sup>13</sup> 이는 룩셈부르크 시대에, 식민화를 통한 토지 취득으로 달성되었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외부’가 필요하다. 이 ‘외부’는 인클로저와 상품화를 통해 자본주의에 통합되고, 자본주의는 ‘외부’에 수익성이 없는 부분을 방출하여 처분한다. 결정적으로, 자본주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비상품화 지역이 필요하다. 이 비상품화 지역은 유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비록 그것만으로 제한되지는 않지만 공동자원도 그 안에 포함된다.<sup>14</sup> 하지만 공동자원은 상품 없이도 잘 존재할 수 있다. 공동자원은 자기 안에서 그 자체로 재생산한다. 이는 공동자원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의 기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암시한다.

## 2. 기본 사회 형태로서 공동자원체계

비록 상품 형태가 대단히 지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선진 (탈)산업국가

---

<sup>12</sup> Marx, K.,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1, ([1887] 2010). At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67-c1/>

<sup>13</sup> Luxemburg, R., *The Accumulation of Capital*, 1913. At <http://www.marxists.org/archive/luxemburg/1913/accumulation-capital/>

<sup>14</sup> 공동자원체계는 사람들이 공동자원만들기(commoning)를 통해 공동자원체계가 되도록 만드는 그 자원일 뿐이다.

에선, 유급 노동을 통해 실현되는 넓은 의미의 사회적 재생산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자본과 상품화 체계가 사회 지속에 필수적인 활동의 대부분을 보이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단지 그렇지 않게 보일 뿐이다. 특히 그 활동의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재생산’<sup>15</sup> 일로 불리는 것이었다. 공동자원을 기본 사회 형태로 물질적으로 구축하는 건 분명 무(ex nihilo)에서 시작할 수 없다. 그보다는 양적으로 지배적인 특정 생활생산 사회조직을 교정하고 확장하는 과정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권력과 자본의 운영은 공동자원을 헤게모니적으로 주변화한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가 창안되어야만 한다. 비록 이 과정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물리적으로 덜 혁명적인 조정일 것이다. 이것을 시작하려면, 규범적으로 정의된 대항서사(counter-narrative)를 넘어서는 데 실패한 반대 접근의 함정을 벗어나, 범주의 재구성(categorical reframing)을 시도해야 한다. 아래에서 나는 먼저 새로운 범주의 틀을 전개하고 난 후, 주어진 낡은 틀에서 새로운 틀로 이동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sup>16</sup> 설명하는 전환도식(transformation scheme)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

15 Federici, S., *Caliban and the Witch: Women, the Body and Primitive Accumulation*, Brooklyn, NY: Autonomedia, 2004.

16 방법론적으로, 이것은 이와 같은 범주들이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의 불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도르노(Adorno, 1966)의 범주의 메타 수준에서 이미지의 폐지 도그마(abolition-of-images dogma)를 거부한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아도르노의 내용은 Adorno, T. W., *Negative Dialectics*, New York: Seabury Press, 1996을 참고할 것.

### 1) 범주의 재구성(categorical reframing)

생활 생산의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주요 범주는 생산과 재생산의 사회적 형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를 위한 상품과 잠재적 대안인 공동자원이다. 상품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기본 사회 형태를 표현한다. 또한 상품은 전체체계를 거의 모든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엔 공동자원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동자원은 그렇지 않다. 공동자원은 상품의 바다 안에서 배아 단계에 있을 뿐,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발전된 사회의 규모 안에 통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범주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공동자원으로부터 재생산되는 공동자원의 통합 네트워크 시나리오를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자본주의 내부의 공동자원은 외부 투입 자원에 의존해야 한다. 통합 네트워크는 그와 달리 모든 필수회로(체계)를 그 안에 통합하고 있어 외부의 투입 자원에 투입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공동자원의 투입과 산출의 모든 순환(loops)을 전체사회 안으로 내부화하고자 할 때, 전체사회 수준에서 조정 문제가 발생한다. 한 장소의 독립단위에서 산출된 재화가 그 재화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장소의 독립단위에게 어떻게 하면 연결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조정이 전체 사회 수준에서 모든 독립단위들에게, 자원의 낭비 없이 균형 잡히게(공정 분배) 일어나도록 하여,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 기본 사회 형태로서의 공동자원을 통합체계(systemic integration)로 발전시키고자 할 때, 공동자원은 교환, 가치, 화폐, 자본, 국가 등과 같은 자본주의 범주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의 근본적이고 대안적인 배아 형태로 가정된다. 이는 거대한 과제다. 우리는 상품과 공동자원의 생산과 재생산 안에 있는 개인적 동기와 집단적 동기, 사회조직의 원리들의 핵심 측면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 과제에 접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상품과 공

동자원의 차이를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 배제 논리와 통합 논리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자유는 본질적으로 고립된(“자유로운”) 개인들이 행하는 계약의 자유다.<sup>17</sup> 이 자유 이데올로기는 인간 존재의 두 가지 진정한 측면을 분리한다. 한편에서는 선택의 자유, 곧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실현할 자유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성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은 다른 이들에 의존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sup>18</sup> 이러한 개인적 책임은 오직 신뢰받는 사람(가족, 친구 등)과의 아주 가까운 혹은 직접적인 상호관계에 대해서만 작용하거나 혹은 작용한다고 전제된다. 조정된 혹은 간접적인 관계는 시장과 같은 낯선 구조에 위임된다. 상품 생산은 외부효과뿐만 아니라 상품 소비를 창출한다. 개인적 소비 선택은 상품이 다른 곳에서(환경오염, 자원 고갈, 노예노동 등) 어떤 조건으로 생산되는가에 간접적으로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개인적 소비는 구조적으로 무책임하다.<sup>19</sup> 무책임성은 개인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제의 논리라고 부르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의해 발생한다. 배제의 논리는 ‘오

---

17 개인 수준에서 논의했지만, 여기에서 표현된 이 발상은 일반적으로 유사하게 인구 집단, 기관 및 조직, 국가 등등에 적용될 수 있다.

18 보통, 개인적 자유의 한계는 타인의 자유와 만나는 곳까지로 간주된다. 이런 개인주의적 접근법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인간이라기보다 고립된 ‘상품 모나드’(commodity monads)로 개념화된다.

19 Meretz, S., “The structural communality of the commons.” D. Bollier and S. Helfrich (eds.), *The Wealth of the Commons: A World beyond Market and State*. Amherst, MA: Levellers Press, 2012a.

직 타인의 희생을 통해 이득을 얻는다'라는 문구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원칙은 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협력은 타자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키우는 방법이 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배제의 논리는 배제를 위해 통합과 배제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영구히 변화시키는 논리다. 배제라는 결과는 통제할 수 없다. 유일하게 고려할 수 있는 건 어느 분야에서 어느 수준으로 누구의 편에 누가 서느냐라는 세부 내용뿐이다.<sup>20</sup>

반면, 공동자원은 적어도 배아 형태에선 통합의 논리를 표현한다. 개인적인 목표는 다른 이들의 필요가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통합의 논리에 기초를 둔 사회를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이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으로 기술했었다.<sup>21</sup> 자유 사회의 기본 동학을 보여주는 이 기술은 두 방식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틀을 보장하는 외부의 힘(국가)이 존재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그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긍정적 상호관계가 펼쳐진다. 다른 하나는 '연합'을 개인의 선의와 신념에 의해 추진되는 지역적이고, 작은 규모의 친밀한 조직 유형으로 이해한다. 사실이 두 방식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i) 자본으로부터 나온 역사적 전개이자 동시에 자본의 범주적 생산물인 국가는 긍정

---

20 분명히 배제의 논리는 사실, 섹스/젠더, 인종, 종교, 나이, 건강, 자격 등등의 거대한 부문을 따라서, 또한 이 부문의 교차결합을 통해 자본주의 (재)생산에 중심적인 분할과 차별의 형태로 수행된다.

21 Marx, K. and Engels, F.,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1848] 1969 At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48/communist-manifesto/>

적 상호 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자본을 제도화한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체계가 (재)생산하는 불평등을 유지하는 무력 사용을 허가하고, 사법 제도를 제공한다. (ii) 그리고 연합은 배제 체계 안의 국지적 수준에서는 적절하게 운영될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의 물질적 현실이다. 사실 지역성의 전제는 기존 틀에 의한 배아형태의 주변화이다. 대신,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이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이란 발상은 동료-공동관리주의 사회(peer-commonist society)의 기본 사회 형태를 간결하게 정의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공동자원은 새로운 형태의 전체사회 조정에 필수적인 기본 요소다.<sup>22</sup>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세 가지 유형의 공동자원을 구분해야 한다.

---

**22** 동료-공동관리주의 사회의 대체용어엔 대략 ‘공동주의’(commonism) (Dyer-Witthford, 2007), ‘생태공동자원체계경제’(ecommony)(Habermann, 2011), 그리고 ‘동료공동자원체계경제’(peercommony)(Siefkes, 2013) 등이 있다.

Dyer-Witthford, N., Commonism. Turbulence 1, 2007. At <http://www.turbulence.org.uk/turbulence-1/commonism/>

Habermann, F., ‘Gutes Leben mit Ecommony’ [The good life with economy], Streifzüge 51, 2011. At <http://www.streifzuege.org/2011/gutes-leben-mit-ecommony>

Siefkes, C., *From Exchange to Contributions. Generalizing Peer-Production into the Physical World*. Berlin: Edition C. Siefkes, 2007. At <http://www.peerconomy.org>

### 3. 공동자원과 동료-공동관리주의 사회

#### 1) 공동자원의 분화

공동자원은 전통 공동자원과 새로운 혹은 최근 등장한 공동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 공동자원은 계속 진행 중인 인클로저 과정의 생존자이다. 인클로저는 자원으로부터 사람을 분리하고, 이 자원과 사람의 활동을 상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Holloway, 2010 참조).<sup>23</sup> 새로운 혹은 최근 등장한 공동자원은 자주 디지털이나 문화 자원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그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 자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된 동료생산의 결과물이다. 곧 교환에 대립하는 기여, 명령과 통제가 아닌 자유협력, 그리고 재산보다는 보유(possession)가 그것이다.<sup>24</sup> 전통 공동자원 담론과 행동이 기존 자원의 보존에 초점을 맞춘다면, 최근 등장한 공동자원은 새로운 자원을 창안한다. 따라서 최근 등장한 공동자원은 한 공동자원의 결과가 다른 공동자원의 자원이 되는 새로운 생산 주기를 생성할 수도 있다. 공동자원 사이의 이런 구별이 전통 공동자원이 다른 공동자원과 관계를 맺는 데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전통 공동자원의 역량은 매우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공동자원의 급속한 확산은 전통 공동자원이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

**23** Holloway, J., *Crack Capitalism*. London/New York: Pluto Press, 2010. 참조.

**24** Siefkes, C., *From Exchange to Contributions. Generalizing Peer-Production into the Physical World*, Berlin: Edition C. Siefkes, 2007. At <http://www.peerconomy.org>

한다. 모든 공동자원은 살아남아, 번영하기 위해 다른 공동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보통 가려져 눈에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제3유형의 공동자원으로 연결된다. 돌봄 공동자원은 사람들 특히 노인, 병자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관련이 있다. 돌봄 공동자원은 매우 오래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돌봄의 뿌리는 활동 영역의 가부장제적인 사회분할에 있다. 대부분의 돌봄이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행해졌기 때문이다.<sup>25</sup> 로슈타 왈츠는 돌봄의 비가시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가치-분리’(value-separation)라고 불렀다.<sup>26</sup> 한쪽엔 상품 생산을 통해 돈을 버는 가격평가(valuation)가 지배하는 영역이 있다. 그리고 이 영역과 분리된 반대 영역이 있다. 그 영역엔 가격평가에 종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행되어야만 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보통 ‘재생산’(reproduction)이라고 불린다. 첫 번째 가치 영역은 남성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지만, 후자인 ‘잔여’ 영역은 여성의 영역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 영역에서, 여성들은 인간 노동 투입의 대부분을 제공한다.

각기 다른 장과 동학으로 공동자원을 이렇게 분할하는 것이 공동자원 그 자체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변형, 분리와 불평등 발전을 반영하는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처럼

---

**25** Federici, S., *Caliban and the Witch: Women, the Body and Primitive Accumulation*, Brooklyn, NY: Autonomedia, 2004.

**26** Scholz, R., *Das Geschlecht des Kapitalismus, Feministische Theorien und die postmoderne Metamorphose des Patriarchats* [The gender of capitalism. Feminist theories and the postmodern metamorphosis of patriarchy], Bad Honnef: Horlemann, 2000.

정의된 모든 공동자원은 자본주의 논리와는 갈등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특정한 견해까지 지니는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그 둘 모두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하다. 이행 경로를 논의하기 전에, 우리는 동료-공동관리주의 사회의 새로운 범주 틀을 더 발전시켜야만 한다.

## 2) 전체사회 조정

사회는 무형이지만, 개념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실체다. 개인 혹은 집합행동의 합 이상인 사회는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는 논리를 지닌 하나의 체계다. 그렇다고 사회가 개인이나 집합행동을 바로 결정하는 명령을 내린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생활 조건은 단지 행동의 가능성일 뿐이다. 사람들은 ‘타당한 이유’(good reason)<sup>27</sup>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 자유롭다. 이 타당한 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 조건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그 일상생활의 조건을 지각하며, 그 조건들은 우리 행동의 전제조건이 된다. 일상생활의 조건은 일상의 생계를 생산하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표현하는 사회적 기반(societal matrix)과 관련이 있다.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는 이중조정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심리학적 시각으로 이는 개인적 존재의 사회적 조정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하나는 사회학적 시각으로 사회 그 자체의 사회적 조정에 초점을 둔다. 두 시각은 모두 한 과정의 일부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창조하는 기본 사회 형태라는 제안을 제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중조정 시각은 각 개인의

---

27 Dray, W., The rationale of actions, M. Martin and L. C. McIntyre (Eds.),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Cambridge, MA: MIT Press, 1994.

생산과 일상생활의 재생산 모두를 다루는 데 타당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를 재생산하는 기본 논리를 표현하는 데도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자본주의를 행하고 있다”란 말은 단지 개인과 사회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는 지혜로운 구호만은 아니다. 그 반대로, 이 말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재생산하여, 우리의 생활을 생산하고 있다. 혹은 그 역도 가능하다. 우리는 그렇게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가 우리를 위해 기능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기본 사회 형태로 공동자원을 만들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sup>28</sup> 공동자원이 전체사회를 조정하는 새로운 형태를 구성할 잠재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필수적이다. 설명한 것처럼, 이는 오직 범주적으로만 할 수 있다.

### 3) 다중심적 자기-조직화(polycentric self-organization)

공동자원은 주로 지역적인 현상으로 인식된다. 비록 공동자원이 위키피디아와 같은 가상 영역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자원은 상품이 달성한 정도로 사회 전체를 통합하고 있지 못하다. 그 때문에 공동자원이 발전하고 통합하여, 완전한 전체사회 조정 단계까지 규모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오래된 상품 기반 형태를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과 만난다. 이 질문을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은 구조적 접근이다. 자본주의는 사회 전체를 조정하고 통합을 촉진하는 화폐, 시장, 국가, 그리고 법과 같은 다양한 단위들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런 단위

---

28 현재, 공동자원체계가 자본주의의 가장 극심한 피해를 흡수하는 데만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심지어 자본주의의 개조를 제안하는지는 여기서 열린 문제로 남겨두자.

들을 대체할 방법을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는 동료-공동자원에 기초를 둔 새로운 사회의 개요를 제시한다.

이 새로운 사회에서, 공동자원은 전체사회 생산과 재생산의 기본 요소이자 사회적 단위다. 하지만 공동자원은 수평적으로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전체사회 필요의 물질적 요구에 따라 수직적으로 구조화된다. 두 차원의 조합은 다중심적 자기 조직화와 거버넌스를 지닌 네트워크로 구조화된다.<sup>29</sup> 이 네트워크는 획일적인 노드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회적 작업을 더 잘 조직하기 위한 공동자원 클러스터를 보유한다. 다음과 같은 공동자원 유형을 가정해보자. 프로젝트 공동자원(project commons), 메타-공동자원(meta-commons), 기반시설 공동자원(infrastructure commons) 그리고 공동자원 제도(common institutions).<sup>30</sup> 모든 공동자원은 노력과 자원을 계획하여, 사람들의 활동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구현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공동자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

- 프로젝트 공동자원의 임무는 실행하는 것(doing)이다: 스스로 결정한 생산과 재생산 작업을 구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재화의 생산(식품, 주거지, 운송 기반시설 등), 자원 재생산(대기, 토지, 원료 등),

---

29 Ostrom, E., "Beyond markets and states: polycentric governance of complex economic systems." *American Economic Review* 100(3), 2010, pp.641-672.

30 공동자원체계가 구조화되겠지만 획일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하지만 어떤 유형의 공동자원체계가 출현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사회 서비스(건강, 교육, 문화 등), 과학과 연구 등이 포함된다. 현재 상황에선 민간 기업과 공적 서비스 부문이 가장 유사하다.

- 메타-공동자원의 임무는 조정이다. 메타-공동자원체계는 프로젝트 공동자원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한다. 하지만 메타-공동자원의 조정은 오직 공동자원의 수가 너무 많아 그들이 자기 자신을 조정할 수 없는 장으로만 한정된다. 메타-공동자원은 조정이라는 특별 업무를 위한 일종의 외주 공동자원으로, 우리가 오늘날 회사나 공적 기관에서 볼 수 있는 경영이나 기획부서와 유사하다. 이런 유형의 조직은 뚜렷하게 분리된 생산적 사회 부문(에너지, 물/하수, 식품 등)이나 전 지구적 공동자원(대기, 해양, 원재료 등)에 유용하다.
- 기반시설 공동자원의 임무는 네트워킹(networking)이다. 기반시설 공동자원은 프로젝트 공동자원과 메타-공동자원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물질과 데이터의 흐름을 위한 기반시설이다. 오늘날의 네트워크 관리(유틸리티, 인터넷, 주파수 스펙트럼 등)와 유사하다. 여기엔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단순히 제공되는 일부 공동재의 저장시설(distribution pools)도 포함될 수 있다.
- 공동자원체계 제도는 서비스의 지속성에 중점을 둔다. 이 제도는 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오늘날 지역 정부와 같이 단지 지역 공동체들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크리스찬 시에프크스의 제안을 따를 때, 이런 유형의 '연합'은 지역에서 전 지구적 단위로 확장될 수 있다.<sup>31</sup>

---

31 Siefkes, C., *From Exchange to Contributions. Generalizing Peer-Production into the Physical World*, Berlin: Edition C. Siefkes, 2007. At <http://>

분명, 이런 공동자원체계들은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그물망같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회 영역의 프로젝트 공동자원은 메타-공동자원의 조정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메타-공동자원과 프로젝트 공동자원은 기반시설의 이용에 매우 높게 의존할지도 모른다. 기반시설 공동자원 그 자체는 더 높은 수준의 조정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공동자원 제도는 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한다. 공동자원의 이 같은 다중심적 배열은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의 기본 형태로 공동자원이 매우 잘 발전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뿐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럼에도 동료-공동자원 사회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숨겨진 전제조건들이 있다. 이는 자발성과 개방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자발성은 자유와 동기의 문제다. 무엇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동기를 가진 사람이다. 자본주의는 그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낳지 않으며, 사람들이 사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여는 오직 성공적으로 팔릴 수 있는 상품으로 이어질 경우에만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모든 활동은 지배적인 소외적 가격평가 논리에 종속된다.<sup>32</sup>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논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각 개인의 잠재력의 완전한 발현은 기여할지 말지를 포함해 기여에 관한 제한되지 않은 자발적 결정을 요구한다. 자발성은 사람 간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통합의 논리 안에서만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유형의 각 개인의 상호적인 자유

---

[www.peerconomy.org](http://www.peerconomy.org)

**32** 자유주의 이론에서, 소외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경시되었지만, Marx는 이를 '물신화'(fetishism)라고 불렀다.

로운 발전을 ‘자기실현’ (Selbstentfaltung)<sup>33</sup>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발전과는 대조된다.

개방성은 모든 정보의 완전한 투명성을 의미한다. 이는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이다. 상품 논리에선 정보와 데이터가 비밀에 부쳐지고, 일정 금액을 지불한 이후에야 제한된 접근 권한이 허가된다(제한적이고 통제된 ‘푸시 모드’(push mode)). 자유사회에서 생계수단의 생산과 관계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모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공개, ‘풀 모드’(pull-mode)).<sup>34</sup> 이는 사회적 업무의 나눔을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지구상의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진 어떤 발견이라도 모든 공동자원의 수행을 바로 향상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오픈소싱(open sourcing)이 비록 ‘비즈니스 모델’이란 좁은 사고방식 안에 내장된 형태라 하더라도, 그렇게 강력하고 미래 지향적인 전략인 이유다.

#### 4) 행동의 초점 변경

자발성과 개방성을 지닌 공동자원에 기초를 둔 자유사회라는 가정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일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끊임없는 가격평가의 순환이란 소외의 논리가 사회적 목적을 사전에 결정한다. 마르크스는 가치와 자본이 ‘자동적 주체’(Automates Subjekt)라고 썼는데,<sup>35</sup> 이는 자본의 논리가 이 과정의 진정한 주체이며, 사람들은 단지

---

33 Meretz, S., “Peer production and societal transformation: ten patterns developed by the Oekonux Project.” *Journal of Peer-Production* 1, 2012b.

34 개인 정보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비밀로 유지될 수도 있다.

35 1867년 독일어판이 1887년 영어판보다 더 날카롭다. 영어판에선 그 끝없

그 ‘대상’일 뿐임을 나타낸다.<sup>36</sup> 이는 상품형태로 생계를 생산하는 역설적 결과다. 따라서 이 과정을 정확히 (재)창출하는 동안에는, 그 전체 과정이 사람들이 따라야만 하는 명령을 내린다. 이런 전제하에서, 전체사회 (재)생산의 목적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성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초점은 이익의 수단(기술적이고 조직적인)으로 제한된다. 자유사회에선 하지만 완전히 역전된다. 자유사회의 초점은 (재)생산의 목적이고, 수단은 오직 필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만 한다. 필요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목적은 끊임없이 토론 상태에 있다. 또한, 외부화(externalisation)는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이 아니다. 내부화(internalisation)는 생산 이전에 필요의 차이를 중재하는 걸 의미한다.

우테 오스테캠프(Ute H. Ostekamp, 1976)에 따르면, 필요는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sup>37</sup> 한 영역은 생산적 필요(productive needs)로, 잠정적으로 생활의 생산을 위해 사회과정에 참여하는 걸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감각-활력 필요(sensual-vital needs)로, 인간의 최저생활과 섹슈얼리티(음식, 거주지, 건강 등)를 가리킨다. 이 두 유형의 필요는 상호의존한다. 생산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은 감각-활력 필요 충족의 전제다. 배고

---

는 순환 속에서 가치가 ‘자동적으로 능동적 성격을 취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독어판 원문에선 가치가 ‘본질적으로 자동적 주체로 변환된다’(저자 번역)고 되어 있다.

**36** Marx, K.,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1, ([1887] 2010). At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67-c1/>

**37** H.-Osterkamp, U., Grundlagen der Psychologischen Motivationsforschung 2 [Principles of psychological motivation research 2], Frankfurt/New York: Campus, 1976. At <http://www.kritische-psychologie.de/1976/grundlagen-der-psychologischen-motivationsforschung-2>

플 때 사람들이 단지 먹을 것이 충분치 않아 고통받는 것만은 아니다. 배고픔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생산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로도 고통받는다. 생산적 필요와 감각-활력 필요의 구체적인 실현은 특정한 역사적 발전에 의존한다는 점에 유념하는 게 중요하다. ‘충족의 질’(the quality of satisfaction)은 Charles W. Tolman(1992: 99)이 쓴 것처럼, 역사적 산물이다. 왜냐하면 이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충족 가능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여기엔 충족을 ‘더 이상 기본적인 생물학적 필요의 실현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도 포함된다. 특히 구체적 필요와 그들의 충족 형태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sup>38</sup>

생산적 필요와 감각-활력적 필요의 역동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모든 사회의 과제다. 자본주의는 이를 그 필요의 집합을 다루는 사회영역의 분리라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생산적 필요는 ‘남성에게 귀속된 공적’ 상품 생산과 연결되고, 감각-활력 필요는 ‘여성에게 귀속된 사적’ 가정의 재생산과 연결된다. 곧 사회영역의 가부장적 분할이다. 더욱이 가 격평가라는 외적 명령으로 인해, 생산적 필요는 실제로 충족될 수 없다. 이는 자격증이 필요 없는 일이나 불안정한 일의 경우에 분명하다. 창의적이고, 고도의 자격을 갖춘 일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잠재력의 자유로운 발전은 항상 시장의 요구와 경쟁의 감시 아래서 이루어진다. 생산은 생산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바람 충족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감각-활력 필요가 충족되

---

**38** 이는 또한 ‘잘못된 필요’와 그들의 충족을 위한 잘못된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역사를 초월하는 ‘진정한 필요’는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충족된 삶에 도달하기 위해 소비해야만 하는 이런 소비로의 격하(格下)는 항상 뒷맛이 나쁘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 조건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동자원, 자발성 그리고 개방성을 기초로 하는 자유사회는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분리를 끝낼 것이다. 사실, 이런 경향은 이미 분명하게 보인다. 하지만 단지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생산을 지배하는 상품 논리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영역의 사회적 분리가 없다면, 모든 것은 동시에 생산이자 재생산이다. 따라서 생산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은 또 다른 목적(소비)을 위한 고통스러운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리고 생산 활동이 자발적인 경우에만 오직 그 때에만 생산적인 필요의 충족은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진정 그것을 원하는 경우에만 그것을 선택한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가 집합적으로 충족의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감각-활력 필요의 실현은 보다 더 만족스러울 것이다. 모든 활동이 보다 안전하고 성취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더 높은 동기부여가 발생한다. 공급이 보장되는 생활 조건에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자원의 제약을 다루기가 훨씬 더 쉽다. 그러므로 자유사회는 한계와 갈등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행복(well-being)에 대한 위협 없이 한계나 갈등을 다루는 사회이다. 만약 누구도 자신의 견해와 목표를 강요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권력이나 지배관계를 사용할 수 없다면, 갈등은 훨씬 더 잘 해결될 수 있다.

더 자세히 지적하면, 자유사회의 주요 관심은 (그 자체로서) 부적합한 목적을 실현하는 최선의 수단보다 적합한 목적에 놓여 있다. 이는 새로운 범주적 틀에서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우리를 이끈다. 어떻게 다른 요구들을 조정할 것인가? 어떻게 자발적 행동을 통해 전체사회

의 일관성을 이룰 것인가? 여기서 스티그머지(Stigmergy)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 4. 스티그머지(Stigmergy)

스티그머지란 규모가 큰 탈중심 체계에서, 지역정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조정(self-coordination)의 한 유형을 말한다.

스티그머지는 행위자들 사이 혹은 행위들 사이의 간접 조정 기제이다. 어떤 행동이 환경에 남긴 흔적이, 다음 행동의 수행을 자극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때 다음 행동의 행위자는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런 방식으로, 후속 행동이 상호 보강하며, 그 위에 구축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일관되고 분명한 체계적 활동의 자발적 발현으로 이어진다. 스티그머지는 자기조직화의 한 형태다. 스티그머지는 행위자 간의 어떤 계획이나 통제, 혹은 심지어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요구하지도 않고, 외견상으론 지능적인 복잡한 구조를 생산한다.<sup>39</sup>

그리스어 'Stigma'(신호)와 'Ergon'(행동)의 합성어인 '스티그머지'는, 원래 피에르-폴 그라세(Pierre-Paul Grassé)가 흰개미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도입한 용어이다.<sup>40</sup> 여기서 페로몬이 신호가 되었다. 이 개념

---

39 <https://en.wikipedia.org/wiki/Stigmergy>

40 Grassé, P.P., "La reconstruction du nid et les coordinations interindividuelles chez *Bellicositermes natalensis* et *Cubitermes* sp. la théorie de la

을 복잡한 자기조직화에 적용하는 데 한계는 없다. 예를 들면, 이미 생물학부터 컴퓨팅 분야까지, 그 적용 영역이 확대돼 왔다.<sup>41</sup> 스티그머지는 의식을 지닌 인간, 그리고 공동자원체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분명한 잠재력을 지닌다. 프란시스 헤이징헨(Fransis Heylighen)은 동료생산에 ‘스티그머지’를 적용했고,<sup>42</sup> 크리스찬 세이프크스(Christian Siefkes)는 ‘암시-기반 과업 분배’(hit-based task distribution)라는 문구를 만들었다.<sup>43</sup> 헤더 마시(Heather March, 2012)는 ‘스티그머지’를 ‘경쟁적이지도 않으며, 전통적으로 협력적이지도 않다’고 설명했다.<sup>44</sup>

스티그머지 과업 조정의 목표는 미시적 행동을, 자본주의 시장 조정이나 중앙 계획과 같은 일관성을 띤 거시적 동학으로 변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접 스티그머지와 간접 스티그머지를 구별한다. 직접 스티그머지는 또 다른 행동을 가리키는 신호 창출의 행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Wikipedia)의 기여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다른

---

stigmergie: Essai d'interprétation du comportement des termites constructeurs.” *Insectes sociaux* 6(1), 1959, pp.41-80.

41 <http://www.evolutionofcomputing.org/Multicellular/Stigmergy.html>

42 Heylighen, F., “Why is open access development so successful? Stigmergic organization and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B. Lutterbeck, M. Bärwolff and R. A. Gehring (Eds.), 2006. *Open Source Jahrbuch 2007 [Open source yearbook 2007]*. Berlin: Lehmanns. At <https://arxiv.org/pdf/cs/0612071.pdf>

43 Siefkes, C., Peercommony Reconsidered, 2013. At <http://www.keimform.de/2013/peercommony-reconsidered/>

44 Marsh, H., Stigmergy, 2012. At <http://www.georgiebc.wordpress.com/2012/12/24/stigmergy-2/>

글에 하이퍼링크를 연결한다. 그러면 그 링크는 붉은색으로 강조 표시되고, 이 누락된 글을 작성하도록 다른 기여자를 불러들인다. 이 과정은 다른 사람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신호를 직접 생성한다. 간접 스티그머지는 과정을 참조하는 신호가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 발생한다. 위키피디아의 요청글 목록은 그 예이다.<sup>45</sup> 혹은 절차 신호가 부가 정보로 표시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원하는 항목을 보여주는 위키피디아 순위는 붉은색 링크에서 자동으로 생성된다.<sup>46</sup>

개인의 시각에서 보면, 스티그머지는 자발적으로 과제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제를 자신에게 스스로 할당해 이미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양식은 분명 위계적인 명령과 통제체계와도 다르고, 경쟁적인 위계 구조에 대한 협력적 대안으로 간주하곤 하는 평면적인 합의 접근과도 다르다. 물론, 합의엔 그 자체의 결점이 있다. 합의는 규모를 확장하면 잘 안 된다. 또한 토론은 확장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때로 방해물(jamming)로 전환된다. 토론은 선동가들에게도 취약하다. 합의가 반드시 모든 참가자가 하나의 결론에 동의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최소한 반대할 이유가 없어야만 한다는 것과 최후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집단 합의에 대한 개인적 동의 여부에 따라, 그 결정을 따르려는 모호한 개인적 동기를 낳을 수도 있다. 반면에, 자기 선택은 결정과 그 결정의 이행<sup>47</sup>이 위계 체계나 혹은 합의 기반 체계에서와 달리, 각각 분리

---

45 [http://en.wikipedia.org/wiki/Wikipedia:Requested\\_articles](http://en.wikipedia.org/wiki/Wikipedia:Requested_articles)

46 [http://en.wikipedia.org/wiki/Wikipedia:Most-wanted\\_articles](http://en.wikipedia.org/wiki/Wikipedia:Most-wanted_articles)

47 Karl Marx(1875)는 '정신과 육체노동 사이의 안티테제'를 '한 개인을 노동 분업에 종속시키는 노예화'라고 비판했다.

되지 않는다.

스티그머지는 매우 높은 수준의 효능(efficacy: 성공적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것)과 효율성(최소한의 노력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첫째, 행동의 기반이 필요 주도이기 때문이고, 둘째, 처리를 중재하는 비용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스티그머지는 화폐를 통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오늘날 엄청난 양의 사회적 노력이 어떤 직접적인 유용한 결과도 없이, 화폐와 관련되어 있다. 회계, 과세, 회계감사, 그리고 기타 재무 운영은 그 예다. 이런 쓸모없는 노력들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구속한다. 사람들의 에너지는 '생산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유용한 결과를 창출하는 일에 더 잘 쓰일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개인적 강압이 없는 자유사회가 사회전체에 필수적인 과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견해는 다소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위계적 조정이나 합의 기반 과제 조정과 비교할 때, 스티그머지의 동기부여 원인은 분명하다. 나는 진정 내가 하고 싶은 일만을 선택한다. 내가 함께 일하는 집단의 힘은 나의 기여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국한된다. 스티그머지를 통한 과제 선택이 모든 활동에 즉각적·직접적·정서적으로 보상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선택한 목표에 도달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강한 동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것이 사실, 스티그머지가 생산적 필요를 충족하는 완벽한 방법인 주요 이유다. 따라서 비록 동기부여가 즉각적인 보상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지만, 동기부여가 된 행동이 개인적으로 혹은 구조적으로 부과되는 외적 일보다 훨씬 더 만

---

Marx, K.,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1875] 1970). At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75/gotha/>

족스럽고, 즐거우며 성취감을 준다.<sup>48</sup> 자발적이고 이렇게 동기부여가 된 과제는 보통 책임 있게 수행된다. 이는 공동자원 사이에 신뢰를 창출하며, 통합의 논리를 강화한다.

스티그머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따른다. 더 많은 사람들 혹은 더 많은 공동자원이 과제에 이끌릴수록, 목표에 도달할 자원은 늘어나고 기회는 확장된다. 이런 긍정적 피드백 순환은 자기 자신을 강화한다.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기하급수적 성장에서 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이 있다. 네트워크 효과는 도약하는 데 임계지점(critical mass)이 있다. 엄청난 수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임계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는 임계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경제적 성공이나 개인적 존재와 결합하여 있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반-경제’ 논리에선,<sup>49</sup> 많은 수의 실험들은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출현하는 혁신의 부엽토가 된다.<sup>50</sup>

마지막으로 스티그머지는 대형 체계로 잘 확장된다. 스티그머지가 성공적으로 규모 확장하기 위해선 다양성이 필요하다. 한 사회의 과

---

**48** 자본주의에서, 대부분 상업적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보상은 일반적으로 생계 확보의 수단을 처리하는 집합적 가능성을 상실한 것에 대해 ‘보상’해야만 한다.

**49** Kurz, R., “Antiökonomie und Antipolitik. Zur Reformulierung der sozialen Emanzipation nach dem Ende des “Marxismus.” [Anti-economics and anti-politics: on the reformulation of social emancipation after the end of ‘Marxism’], *Krisis* 19, 1997.

**50** 자본주의에선, ‘반-경제적’ 공동자원체계와 그 성과의 착취 사이에 다양한 관계의 형태가 있다. 여기엔 건설적인 관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공동자원체계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형을 만들기 위해 공동자원체계를 비옥하게 하려는 경우가 그것이다.

제와 사람 둘 다 우리의 상상만큼이나 다양하다. 프리소프트웨어(Free Software)엔, 에릭 레이먼드(Erik Raymond)가 만든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보는 눈이 많으면, 모든 오류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Given enough eyeballs, all bugs are shallow). 이는 ‘리누스의 법칙’(Linus’ Law)을 말하는 데, 최초의 리눅스 커널 개발자인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에게 경의를 표하는 문구다. 이를 따라하면, ‘스티그머지 법칙’(Stigmergic Law)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도 있다. “사람이 충분히 많다면, 당신은 해야만 하는 모든 일에 필요한 피짜를 찾을 수 있다.”<sup>51</sup> 여기서 ‘피짜’(nerd) 혹은 ‘별종’(geek)은 한 과제에 몰입하여, 그 과제가 가능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될 때까지, 그 도전을 열정적으로 탐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 무엇도 이런 유형의 동기부여를 능가할 수 없다.

## 5. 몇 가지 우려에 대한 생각

스티그머지가 정말 화폐 등과 같은 자본주의 조정 범주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일부 사회적 필요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서, 다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란 비유를 사용할 수 있다. 스미스의 시장에선, 미시 활동들이 교환, 가치, 돈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거시 일관성으로 종합된다. 스티그머지에서, 필요-주도의 자발성과 개방성이 이런 객관화된 수단을 대체한다. 우

---

51 전문용어로 말한다면, 이는 확률이론에서 말하는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이다.

리는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통제하지 않는 외적 조정에 종속되어야만 하지만, 자유사회에선 우리가 조정자이고, 우리가 완전히 통제한다. 제3의 ‘메커니즘’(mechanism)은 없다. 우리 자신이 조정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어 행동하는 오토마티즘(automatism)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사회는 특정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다. 전체사회의 일관성을 통제한다는 발상은 어리석다. 따라서 그 일관성이 어떻게 생성되는지가 문제다. 종교적 교리인가? 보이지 않는 손인가? 혹은 우리 자신인가?처럼 말이다. 공동자원체계가 사회생활의 기본 형태를 구성하는 한, 우리가 그 일관성을 형성한다. 또한 사회엔 정부의 감독이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계획은 필요하다. 하지만 하향식, 중앙 계획의 의미는 아니다. 그와 달리, 필요가 대단히 다양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계획은 주로 공동자원 그 자체의 과제여야만 한다.

필요에 따른 생산과 재생산이 지역에서 전 지구적 수준까지 분포된다고 가정할 때, 자기-계획(self-planning)은 거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는 완벽한 수단이다. 여기엔 기반시설에 책임을 지도록 자기-설계된 공동자원체계의 자기계획도 포함된다. 사람들의 다양성은 엄청나게 다양각색이다. 생산적 필요의 실현 결과와 감각-활력 필요의 충족 사이에 좋은 일치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기반시설 계획은 다른 공동자원의 시각에서 보면 외부로 향한 계획이고, 그래서 자기-계획이란 생각은 이 점에서 무너진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물론, 기반시설 공동자원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공동자원의 일과 진정 다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공동자원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생산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이다. 어떤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유지한

다는 것이 사람들이 해당 기반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권한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반시설은 거기에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유일한 쟁점은 수용 능력이다. 기반시설을 책임지는 공동 자원체계가 이를 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또 다른 우려는 전 지구적인 분업과 관련 있다. 이와 관련해, 첫째, 우리가 모든 것이 ‘노동’(labour)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면, 삶의 분리된 영역 곧 “경제” 영역에서의 특별한 활동이란 의미의 ‘노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생산과 재생산 사이에 더 이상 분리가 존재하지 않기에, 모든 활동은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스티그머지는 활동의 전 지구적 분업이 소멸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불합리한 분업을 재-지역화할 것이다. 아마도 음식 생산이 그럴 것이다. 또한 지리적 의존성(원료 추출)으로 인해 다른 분업은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생각의 공유로 평행 개발(parallel development)을 피할 수 있어, 어떤 분업은 감소할 것이다. 가격평가와 화폐가 주도하는 전 지구적 생산 체계가 필요와 자발성, 그리고 개방성이 주도하는 체계로 변형된다면, 그때 전체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모든 활동을 재배열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부정의와 민주주의가 있다. 부정의와 관련해, 우리는 분명 다양한 선(젠더, 인종, 나이, 등)을 따라 발생하는 부정의와 분할이 자동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배제의 논리를 지닌 자본주의와 비교한다면, 동료-공동주의에선, 그 부정의와 분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배제주의자들의 행위가 그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기회를 가질 것이다. 스티그머지 다중심적 자기조직화에 기반을 둔 동료-공동자원을 민주주의와 관련해 생각해보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대표정치라는 의미에서 공식 민주주의로

알고 있는 것을 간단히 넘어선다. 이는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민주주의이다. 혹은 우리가 민주주의란 용어를 계속 고집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포용적 민주주의(inclusive democracy)이다.

## 6. 전환(Transformation)

동료-공동관리주의 사회의 범주적 골격을 발전시킨 이후의 논리적인 다음 단계는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을 논하는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바로 어떻게 새로운 생산양식을 확립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그에 반해 현재의 생산양식은 지배적이다. 특히 강력한 개인과 제도들이 현재 그대로 상황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다가오고 있는 역사적 이행이란 도전을 이해하고자 할 때, 종종 배아 형태(germ from) 모형이라고도 불리는 5단계 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sup>52</sup>

일반적으로, 이 모형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현상의 존재와 발전을 동시에 이해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모형이다. 과제는 동료-공동자원 생산을 자본주의 생산의 현대화이자,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생산양식의 초기 형태로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다. 5단계 모형은 이것 아니면 저것(either-or)이란 사고를 피하도록 하여, 동료-공동자원 생산의 출현과 발전을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그 자체의 모순을 지닌 과정으로 볼 수

---

52 Holzkamp, K., *Grundlegung der Psychologie* [Foundation of psychology]. Frankfurt/New York: Campus, 1983.

Meretz, S., "Peer production and societal transformation: ten patterns developed by the Oekonux Project." *Journal of Peer-Production* 1, 2012b.

있도록 한다. 보통, 이 5단계 모형은 발전을 분석하여 그 결과가 잘 알려진 과정에 적용되는 회고적 모형이다. 자유로운 동료-공동자원 사회로의 이행 결과를 하나의 사실로 추정하거나 혹은 이를 상상한 다음, 그런 이행 결과가 출현하는 과정을 이 모형을 사용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 다음은 5단계의 대략적인 개괄이다. 우선 나열한 이후에, 동료-공동자원 생산에 적용한다.

1. 초기배아형태(Embryonic form): 새로운 기능이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그 새로운 기능을 최종 실체의 모든 속성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풍부한 씨앗으로, 그래서 성장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씨앗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단계에서, 초기배아 형태는 새로운 그 자체가 아닌 새로운 것의 원리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동자원 기반 동료생산 그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자발성과 개방성을 기반으로 동료시민 사이에 이루어지는 필요-지향 조정(調停)(needs-oriented mediation)이 그 생산이 보여주는 질적으로 새로운 측면이다. 초기 단계에서, 이런 새로운 측면은 오직 지역 수준에서만 나타난다. 그리고 전 지구적 수준에선 몇몇 장소에만 볼 수 있다.
2. 위기: 두 번째 단계는 기존 체계 전체가 위기에 빠져, 더 이상 그 체계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오직 그때에만 초기 배아 형태가 틈새(niches)를 벗어날 수 있다. 상품, 시장, 자본과 국가를 통한 자본주의적 방식의 전체 사회 생산과 재생산으로 인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자본주의적 방식은 역사적으로 축적된 제도 자원(system resource)을 계속해 그 수준을 낮추면서 고갈시키는 단계로 들어갔다. 반복되는 금융위기와 현재 발전하고 있는 생태학적 위험

성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3. 기능 전환(function shift): 새로운 기능이 성장하고, 틈새를 벗어난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능이 기존 체제의 재생산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이전의 초기 배아 형태는 이제 양면성을 보여준다. 한편으론, 그 배아 형태는 기존 체제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선, 그 배아 형태는 기존 지배체제의 논리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논리를 유지하고 있다. 동료시민-공동자원 생산은 비용 절감의 목적이나 상업 활동의 새로운 환경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활용은 그 활동 안의 비(非)상품 발달에 의존한다. 동료-공동자원 생산을 일반 상품 생산 순환 안으로 선택하여 흡수하는 것이 가능하다.<sup>53</sup> 그러므로, 동료 생산이 자기 자신의 공동자원 기반 원칙과 그 기반 위에서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능력을 방어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다음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프리소프트웨어(Free Software)는 바로 이 단계에 있는 동료-공동자원 생산의 한 예이다. 오픈 하드웨어(Open hardware)는 현재 틈새를 막 벗어나는 지점에 있다.
4. 지배 전환(dominance shift): 새로운 기능이 널리 보급된다. 오래된 기능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지만, 이전 지배적인 기능에서 물러나 주변 영역으로 밀려난다. 동료-공동자원 생산은 전 지구적 수준에서 네트워크 밀도에 도달하여, 투입-산출 연결은 자립 순환(self-contained loop)에 가까워진다. 돈을 이용하는 시장조정에 따른 분리된 사적 생

---

53 De Angelis, M., *The Beginning of History: Value Struggles and Global Capital*, London: Pluto Press, 2007.

산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필요-기반 스티그머지 조정이 생산과 분배를 조직한다. 전체 체제는 이제 질적으로 그 자신의 특성을 바꾸었다.

5. 재구조화(restructuring): 발전의 방향, 기본구조와 기본 기능의 논리가 바뀌었다. 이 과정은 점점 더 많은 사회 분야를 포괄하며, 이 분야들은 필요를 기반으로 하는 전체사회의 조정 양식에 초점을 맞춘다. 불필요한 국가 기능은 없어지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남으며, 새로운 제도들이 출현하는데 이들은 집합적인 '자기실현'(Selbstentfaltung)의 수단으로 더 이상 판에 박힌 국가의 성격을 띄지 않는다. 새로운 모순이 출현하고 새로운 발전의 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이 5단계 모형은 즉각적인 행동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역사적 이행의 변증법적 개념화를 위한 인식론적 모형일 뿐이다. 이 모형의 주요 이점은 성과 없는 양자택일적 토론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모형은 새로운 생산양식의 등장을 그 안에 있는 자유사회를 향한 초월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체제를 위한 유용성의 차원에서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와 같은 전개의 양면성은 오늘날의 동료-공동자원 프로젝트를 분석할 때도 관찰할 수 있다.

## 7. 실제 적용

자유로운 동료-공동자원 사회의 범주적 틀과 동료-공동자원 모형화(스티그머지), 그리고 이제 5단계의 이행 경로 분석을 전개했으니, 오늘날 일

어나고 있는 동료-공동자원 생산의 구체적 예들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좁은 의미의 동료-공동자원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런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는 전 지구적 경향의 영향을 함께 봐야 한다. 새로운 생산양식의 배아 형태에 관한 기능 전환 이론이 타당하다면, 이 기능 전환은 양면적 특징을 보여줘야만 한다. 다시 말해, 통상적인 영업 활동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본주의 논리의 외부에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실천 속에서도 확인되어야 한다. 여기서 두 사례가 고려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오픈 하드웨어 프로젝트(Open Hardware Project)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주식회사다.

#### 1) 오픈소스에콜로지(Open Source Ecology: OSE)<sup>54</sup>

2003년 마르친 야쿠보우스키(Marcin Jakubowski)는 OSE를 설립했다. OSE는 법적으로 '비영리 법인'이다. OSE의 사명은 '오픈소스 경제(환경 재생과 사회정의를 제공하면서, 생산과 분배 모두를 최적화하는 경제)를 창조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한 마을이 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수단을 공급하기 위해, 50개의 가장 중요한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지구촌건설세트(the Global Village Construction Set: GVCs)라고 부른다. 트랙터, 벽돌 프레스, 컴퓨터 수치 제어(CNC) 기계, 베이커리 오븐과 유제품 착유기부터 자동차와 트럭에 이르기까지 그 구성은 다양하다. OSE는 분산 프로젝트다. 야쿠보우스키가 소유한 미국 미주리의 'The factor e farm'은 이 프로젝트의 '본부'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기계들의 시제품을 만들고 시험한다. 'The Factor e Farm'에서 상근 기여자는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보수를 받는다. 재정은 기부와 기관 보조금으로 충당

---

54 See <http://www.opensourceecology.org/>

한다. 주요 설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오픈 소스(open source): 이는 완제품 및 시제품을 위한 혹은 그것들의 계획, 설계, 설명 및 교육 자료가 프리 카피라이트 라이선스(Free Copy Licence) 아래 배포되는 것을 의미한다.<sup>55</sup>
- 모듈화(modularity)와 탄력성(flexibility): 기계 사이에서 일반 부품(모터, 동력장치, 전자장치 등)의 상호교환과 재조합을 가능하게 한다.
- 사용자 접근성(User accessibility): 사용자들이 기계를 스스로 만들거나 유지하는 걸 가능케 한다.
- 요람에서 요람까지(Cradle-to-cradle):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제작 주기
- 낮은 비용으로 제품의 높은 성능과 생산 효율을 끌어내는 것이 기본 지침이다.
- OSE는 ‘분산 경제’(distributive economy)를 장려하는데, 이를 통해 다른 기업들은 영업 모형뿐만 아니라 오픈 기술을 복제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OSE는 자본주의 문명 모형의 위기에 대한 반응이다. 야쿠보우스키는 ‘긴박한 세계 문제에 대한 무관심에 좌절’했다.<sup>56</sup> 그 리곤 분산적이고 재지역화된 ‘오픈소스 경제’가 다중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가정했다. 지역 공동체는 그들 자신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

---

55 OSE는 Creat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License를 이용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이들은 동일 라이선스가 모든 재분배에 적용된다는 조건 하에 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다.

56 링크 없어짐.

것이다. 전통적인 산업생산에서와 같은 외부효과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가정은 매우 비현실적이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외부효과는 원거리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와 목적 때문에 발생한다. 곧 상품 생산은 돈을 벌기 위해 발생한다. 'OSE'에서, 경제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중립적인 생산자처럼 보이지만,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은 상품생산에서 부수효과에 불과하다. 사실, 경제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추상적 부를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하는 자기-되먹임 체계(self-feeding system)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계를 꾸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OSE 접근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본질적으로 모순적이다. 어떻게 보면, 윤곽을 제시했던 5단계 모델의 배아 형태 단계에 내재한 문제와 모호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런 모순된 성격은 라이선스 문제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편으로, OSE는 개방성의 패러다임을 충분히 확신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패러다임에 관해 의무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비록 덜 강조되고 있지만, 이견 자발성에서도 마찬가지다. OSE는 분명 동료-공동자원 프로젝트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OSE는 자신의 기계를 팔아 프로젝트의 재정을 마련하길 원한다. 모든 생산 지식을 자유롭게 나누는 방식으로 희소성을 극복하려는 입장과 희소성 경향에 의존하는 시장에 고유의 상품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 사이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런 조건에서, 경쟁자는 더 적은 돈으로 무료 공개 지식을 활용하여 동일한 기계를 만들 수 있다. OSE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와 분배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는 우리의 영업 모형을 공개적으로 발행하여 다른 이들이 어떤 기획이라도 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당신도 아는 것이다.” 이는 독점 자본주의나 군국주의에 대립하여, 진정 자유로운 기획과 생명을 주는

경쟁(life-giving competition)을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 한마디로, 분배경제는 ‘공유’(sharing)로 불린다. 정치적 의미에서, 이 현상은 ‘탈집중화 공학’(decentralisation engineering)으로 기술할 수도 있다.<sup>57</sup>

이 논리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문제는 독점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점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좌우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기계를 판매하는 것은 OSE 프로젝트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비록 이 방법이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sup>58</sup>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자신의 실천을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는 목표, 예를 들면 대규모 생산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 ‘Single-day-builds’(하루에 하나의 기계를 만드는 것)와 같은 목표에 자신을 종속시키기 시작했다. 이는 OSE가 기계를 시장에 팔기 원한다면 말이 되겠지만,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GVCS의 개발이라는 본래의 목표에서 다른 데로 돌린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런 목표가 시장 종속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sup>59</sup>

오픈소스에콜로지는 주목할 만한 동료-공동자원 프로젝트다. OSE는 개방성과 자발성이 디지털 영역에서 물질적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감을 불어넣는 전망, 곧 주어진 생산력 수준에서 현지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조합(set)을 전 세계에 제공한다는 전망

---

57 링크 없어짐.

58 2012년 소득 및 지출에 마지막으로 등재된 ‘GVCS 선주문’엔 ‘0’으로 되어 있다. [http://www.opensourceecology.org/wiki/OSE\\_Financial\\_Transparency](http://www.opensourceecology.org/wiki/OSE_Financial_Transparency)를 보라. 두 대의 기계가 팔렸다. 이는 그 수입의 이용에서 차이를 직접적으로 야기했다. 다음 해엔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

59 OSE를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가에 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관련 링크 없어짐.

과 자신의 생산적 필요를 충족할 가능성이 결합해 이 프로젝트를 앞으로 밀고 나간다. 프로젝트 리더는 매우 성공적인 소통 캠페인을 조직해왔고, 그 결과 다음 몇 년 동안에 필요한 예산을 보장해주는 상당한 수준의 기부를 ‘진정한 친구들’ 혹은 기관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결과는 기계 그 자체이다. 그 기계들은 대응 상품의 단순한 복제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설계 조합과 창조 기준의 실현이다. 모듈화는 마케팅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다.<sup>60</sup> 이 기계는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일반 상품처럼 자신의 훌륭한 특성을 사용자나 경쟁자에게 숨기지 않는다. 이 기계는 단순하고 저렴한 방법을 사용하여 쉽게 만들고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동시에 성능과 효율성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 기계는 적어도 배아형태에 있는 새로운 생산 양식을 물리적으로 대표한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생산 수단이 생산될 때, 자유사회에서 무엇이 가능한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그 자신의 엄청난 잠재력이나 자신에 내재된 모순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프로젝트가 몰락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비록 이 프로젝트가 직접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희망하는 바처럼 물질적으로 (기계를 통해) 필요에 기여하거나,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동료-공동자원의 발전과 위상정립(적어도, 동료-공동자원 생산의 현재 모순을 보여주는 한 예시로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기 이전에는 아니겠지만 말이다.

오픈소스에콜로지가 사업에 대해 다소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필연적으로 모순은 이 프로젝트의 동료-공동자원 성격에 도전하면서 표면화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

60 그 한 예가 ‘power cube’이다.

많은 프로젝트(대부분은 저기술(low-tech)을 기반으로 했다)가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사라지거나 혹은 일반적인 회사로 변형되었다. 분명한 것은 이 모순이 어떤 개인 혹은 조직의 단점에 의해 혹은 그것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기보다는, 통화 논리와 상품 형태가 지배하는 사회의 객관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5단계 모델을 통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동료-공동자원 프로젝트는 한편으론 개방성과 자발성이란 핵심 동기를 살리면서 다른 한편으론 가격평가의 논리와 시장으로부터의 소외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암초가 뒤덮인 얇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어려운 과제다.

## 2) SYNAXON AG

SYNAXON AG는 독일 IT부문의 중간 규모 주식회사로 급진적인 자기조직화(radical self-organization) 개념을 따른다.<sup>61</sup> CEO인 프랭크 뢰버스(Frank Roebers)는 기업에서 웹2.0기술을 이용하는 문제를 다룬 책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sup>62</sup> 그는 SYNAXON에 2006년엔 위키를, 2012년엔 소통 도구인 리퀴드 피드백(Liquid Feedback)을 도입했다. 모든 회사 정보(운영자료, 직무 설명, 프로젝트, 분기 별 계정 등)는 위키에 게재되며, 모든 직원들은 이에 접근할 수 있다. 모든 직원들은 다른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조정관리(moderation)를 받지 않고도 자기 자신

---

61 <http://www.synaxon.de/>

62 Roebers, F. and Leisenberg, M., WEB 2.0 im Unternehmen: Theorie & Praxis —Ein Kursbuch für Führungskräfte [WEB 2.0 in enterprises: theory & practice— course book for managers]. Hamburg: tredition-Verlag, 2010.

의 직무 설명을 포함해 어떤 것이든 변경할 수 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이런 투명성에 다소 침묵으로 대응했는데, 왜냐하면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는 잘못된 말을 올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감히 변화를 꾀한 첫 번째 사람은 아직 수습사원이었던 한 젊은 노동자였다. 그는 회사의 사명(mission) 진술을 삭제했다. 그 진술이 맘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영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였다. 경영진은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기로 했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뢰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군가 핸드브레이크를 푼 것 같았다.”<sup>63</sup> 그 이후, 40만 건이 넘는 변화가 일어났다. 로에버스는 단 한 번도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그 안엔 회사가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제안들이 여럿 있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실명으로 위키를 이용하기 때문에, 진정한 근본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뢰버스는 리퀴드 피드백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전에 독일 해적당에서 개발해, 사용했던 소통 및 투표 도구였다. 모든 직원들은 필명을 사용했고, 익명으로 제안서를 올릴 수 있다. 만약 한 제안이 직원 투표의 10%를 획득하면, 그 제안은 토론 단계로 넘어간다. 논쟁 후에는, 해당 안건은 성찰을 위한 휴식기에 들어간다. 만약 최종 투표에서, 50%의 투표율과 과반수를 얻으면 그 제안은 실행한다. 임금지급이나 경력 기회 등 작지만

---

**63** “Frank Roebers와의 인터뷰”, Berliner Zeitung, 21. September 2012. (저자 번역); at <http://www.berliner-zeitung.de/wirtschaft/unternehmen-im-wandel-kreative-koepfe-fuehrt-man-nicht-wie-eine-spargelstecherkolonnie-5176782>

중요한 결정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심지어 경영진들이 찬성하지 않은 결정들도 실행되었다.

악한 관리자들에겐 위키와 리퀴드 피드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방성이 그들의 지식 독점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낮은 수행능력을 가시화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위키와 리퀴드 피드백은 직원들의 집단적 지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의 성공 여부는 측정할 수 있다. 사실, Synaxon은 단 10%의 인원을 늘렸을 뿐인데, 그 수익은 두 배가 되었다. 효율성과 혁신 능력 모두 엄청나게 성장했다. 이는 직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고, 그들의 발상과 창의력을 도입하며, 생산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직원들에게 제공했기에 가능했다. 비록 이 모든 것이 시장에서 판매될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틀 안에 갇혀 있었지만 말이다. Synaxon의 모토는 다음과 같다. “원하는 것을 하라, 단 수익을 창출하라.”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령은 개방성과 자발성을 착취한다. 더 이상 ‘좋은 노동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하는 ‘악덕 상사’는 필요없다. 대신, 가격평가의 논리가 그 일을 한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개방성은 오직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기업 내부 정보는 회사 외부에 기업비밀로 취급된다. 자발성은 자발적으로 시장 명령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행동을 생산하는 것은 경영진의 거부권이 아니라, 회사의 목표와 동일한 방향으로 행동을 귀결시키는 가치화 논리의 내부화다. 직원을 통합하고 ‘급진적인 자기조직화’를 도입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타인과 경쟁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때 자유란 타인의 배제를 촉진하며, 판매된 상품 안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비용을 외부화하기 위해, 당신의 동료들과 협력할 자유다. 이는 물론 정확히 배제의 논리다.

Synaxon의 예는 동료생산이 사회 곳곳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각 개인 안에서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투쟁 중인 것처럼, 새로운 생산양식은 실제로 낡은 틀 안에서 출현한다. 비록 궁극의 목적이 여전히 이 새로운 생산양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혐오스럽지만, 그럼에도 명령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는 무슨 일을 할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훨씬 낫다. 분명, 우리를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면, 이는 자유가 아니다. 자기-착취의 자유는 자기 착취이지 자유가 아니다. 그렇지만 가격평가의 전제 아래에서도 자신의 개인적 능력을 따르는 법을 배운 이들은 동료-공동자원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과업을 자기 조직화하는 법을 알고 있다. 우린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티그머지를 활용한 자기선택(stigmatic self-selection)을 통해 사회적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의 토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자기선택이 더 많은 돈을 벌려는 끊임없는 순환에 포획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 말이다.

언뜻 보기엔, 오픈소스에콜로지와 Synaxon은 달라 보인다. 하지만 이 둘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OSE의 개방성이다. 모든 결과를 오픈소스로 하면, 다른 공동자원에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한다. 제품과 그 과정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점이 정확히 자본주의 환경이란 맥락 속에서 개방성이 가지는 주요 문제다. 시장에서의 경쟁자도 역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지식을 일방적으로 오픈소스로 개방하는 것과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Synaxon은 이 모순을 처리하기 위해, 개방성을 내부로 한정했다. 하지만 어떤 회사들은 그 지식을 다른 생산자와 고객에게 개방하는 것이 경쟁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거래 비용을 줄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런 개방

성이 커지는 경향은 분명하다.

자발성과 관련해선, Synaxson이 더 유연해 보인다. 경영진은 직원들이 시장 수요라는 조건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다. OSE에선, 설립자가 프로젝트와 사람들을 통제하기를 원한다. OSE 구성원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일하기로 했지만,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데는 덜 자유롭다. 설립자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Synaxson 피고용자들의 종속이 시장의 요구에 따른 비개인적이고 간접적인 것이라면, OSE 동료직원들의 종속은 반대로 창업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것이다. OSE의 목표는 동기를 부여하는 매우 강한 힘이지만, 그 구체적인 조직 형태는 모든 이를 위한 좋은 삶(well-being for all)이라는 그 프로젝트 전체의 목적에 비해 너무 한계가 많다. 이로 인해 동기유발이 줄어들고 갈등이 촉발된다. 언뜻 보면, 이런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의견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엔 Synaxson과 동일하게 수익성 요구라는 일치하기 어려운 요구가 놓여 있다. OSE는 비록 일반 기업이 아니라 동료-공동자원이지만, 일반 기업인 Synaxson에 비해 시장의 소외적 요구라는 한계 속에서 자발성의 생산적 힘을 발휘하는 데는 오히려 실패했다. 오픈소스 에콜로지 프로젝트와 Synaxson 모두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방향을 대략 가르쳐준다. 가격평가의 장에서 경쟁을 통해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는 없고, 오직 가격평가의 장을 벗어난 곳에서 협력을 통해 넘어설 수 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이 모순에 대처하는 것이다.

## 8. 결론

이 글에서 나는 상품생산사회의 범주 틀 안에 발생한 해방적 접근이 우리의 생계수단을 생산하는 새로운 생산양식의 창안을 통해, 그 범주를 초월해 나가는 하나의 접근으로 발전해 나가는 범주적 전환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그 배아 형태가 우리 눈앞에 출현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생산양식은 아무 근거가 없는 발상이 아니다.

핵심 질문은 동료-공동자원이란 기본적 사회 형태가 전체 사회를 포괄하는 조정을 형성할 수 있는지다. 스티그머지식 사회 조정(stigmergic societal mediation)과 결합한 다중심적 자기 조직화(polycentric self-organization)가 일관성 있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개방성과 자발성은 새로운 생산양식(재생산과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이 출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역사적 이행의 5단계 모델과 이것들을 결합하면,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볼 때 분석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생산양식이 오직 모순을 통해서만 출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도 실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본과의 타협을 적과의 협력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료-공동자원생산 발전의 현재 단계에서 회피할 수 없고 참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명 만병통치약 같은 해법도 또 유일한 해법도 없다. 나는 이 점을 두 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한 사례는 동료-공동자원 프로젝트이고, 다른 사례는 주식회사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프로젝트가 제시한 매우 가치 있는 목표가 그 자체로 프로젝트의 성공적 발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자본주의 회사가 경쟁력 있는 시장행위자가 되려는 목적으로 동료생산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동료-공동자원은 관념론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사회 속에 실재하

는 객관적 경향이다. 자본주의는 자신을 파문을 사람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파문기는 실행의 문제다. 곧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파문기는 진전되지 않는다.